

# 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시황 코멘트 | 2024. 11. 04

## 주간 마켓 스펙트럼: 필수소비재, 2차전지 VS 반도체

투자전략팀 | LS.Research@ls-sec.co.kr 황산해 | sh.hwang@ls-sec.co.kr

'24년의 메인 이벤트, 미 대선이 다음주로 다가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주간 평균 VIX 지수도 19.0pt→20.9pt로 상승. 이에 한국 증시는 물론 글로벌리한 비중 조절이 이뤄지는 모습. 특히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 미국은 빅테크 실적발표와 SMCI 회계조작 이슈를 명분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의 하락 출현. 한국은 주도 섹터였던 조선, 금융, 기계 등 약세. 반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최근 부진했던 업종 및 종목 아웃퍼폼

### 3W 연속 상승, 필수소비재에도 퍼지는 밸류업 기대감,

WI26 섹터 중 가장 긴 상승 모멘텀 이어가는 필수 소비재. **오리온(+2.1%, 1W)**, **롯데칠성(+2.3%)**, **동서(+27.8%)** 등 밸류업 지수 선정된 종목들 상대적 강세. **KT&G(-1.4%)**는 3분기 호실적 기록 후 상승세 이어갔으나 금주는 부진. 로제의 신곡 아파트와 넷플릭스 흑백요리의 글로벌 흥행도 K-푸드 기대감 부각시키며에 긍정적センチ 부여했던 요인

### 2차전지, 대선직전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후퇴

에너지프리미엄 이후 급등한 테슬라의 주가레벨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국내 2차 전지 업종으로도 운기 확산. **LG에너지솔루션(+1.4%)**, **삼성SDI(+3.0%)**, **에코프로비엠(+7.7%)** 등 상승. 삼성SDI는 부진한 실적에 상승폭 축소했으나 ESS사업부 성장세 부각. **필에너지(+18.1%)** 배터리 전극공정 장비 수주 소식에 급등

### 반도체, 삼성전자 간만의 반등

**SK하이닉스(-9.4%)**, **한미반도체(-5.1%)**등이 미국 빅테크와 AI 관련주 부진과 커플링된 가운데 **삼성전자(+4.3%)**는 간만의 주간 상승 마감에 성공. 삼성전자는 29일 대만 언론이 엔비디아향 HBM 공급 협력사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보도하며 기대감 상승. 이후 31일 컨콜에서 주요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음을 언급

### '24년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의 조정

YTD 기준 수익률 상위 섹터들이 미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를 앞두고 비중조절의 대상이 되는 모습. **HD현대중공업(912.1%)**의 **조선(-7.7%)**, **KB금융(-9.1%)**의 **은행(-6.6%)**, **HD현대일렉트릭(-6.5%)**의 **기계(-2.6%)** 등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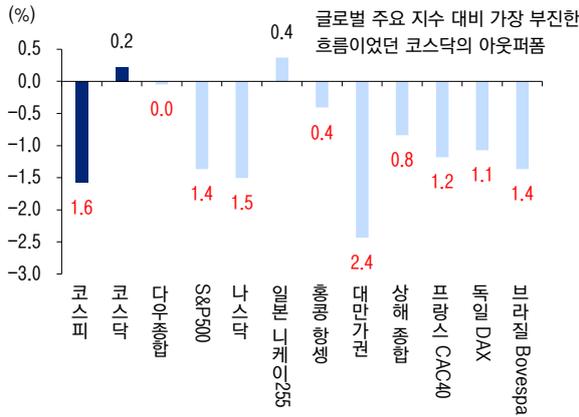
### 비철/목재,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이후 급락

가파른 상승세에 투자경고 종목 지정됐던 **고려아연(-20.0%)**은 30일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하한가 신고. 100만원선까지 깨지는 듯했으나 금감원의 개입 소식에 재차 반등.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 일단락되는 흐름에 대부분 급락

WI26 섹터 별 주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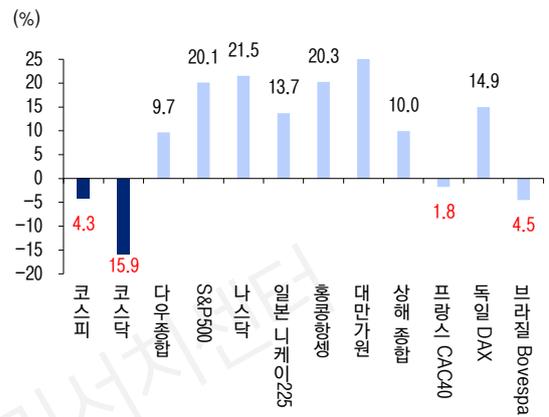
	1W	2W	3W
코스피	-1.6	-0.4	-0.1
코스닥	0.2	-3.4	-2.3
호텔,레저서비스	4.8	-3.0	-1.2
IT가전	2.4	-1.5	-7.6
소매(유통)	2.3	-4.2	-0.2
에너지	2.0	-0.2	-3.2
디스플레이	1.6	-4.5	-1.0
필수소비재	0.8	0.6	1.5
소프트웨어	0.8	-2.4	0.5
철강	0.3	-2.8	-5.4
화학	0.3	-2.7	-6.1
반도체	-0.1	-1.9	-0.2
운송	-0.2	-0.8	3.2
화장품,의류,완구	-0.2	-3.6	-0.2
통신서비스	-0.2	2.0	3.4
건설,건축관련	-0.5	-4.7	-1.6
미디어,교육	-0.8	1.8	0.8
유틸리티	-0.8	4.7	2.9
보험	-1.1	1.5	2.0
IT하드웨어	-1.2	-3.9	-2.5
증권	-1.8	-0.7	3.0
상사,자본재	-1.9	-1.2	1.8
자동차	-2.1	-1.5	-3.0
기계	-2.6	-1.1	3.6
건강관리	-3.3	-3.4	0.5
은행	-6.6	3.2	2.6
조선	-7.7	0.9	4.2
비철,목재등	-13.3	29.2	1.6

그림1 글로벌 주요 증시 1W 수익률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글로벌 주요 증시 YTD 수익률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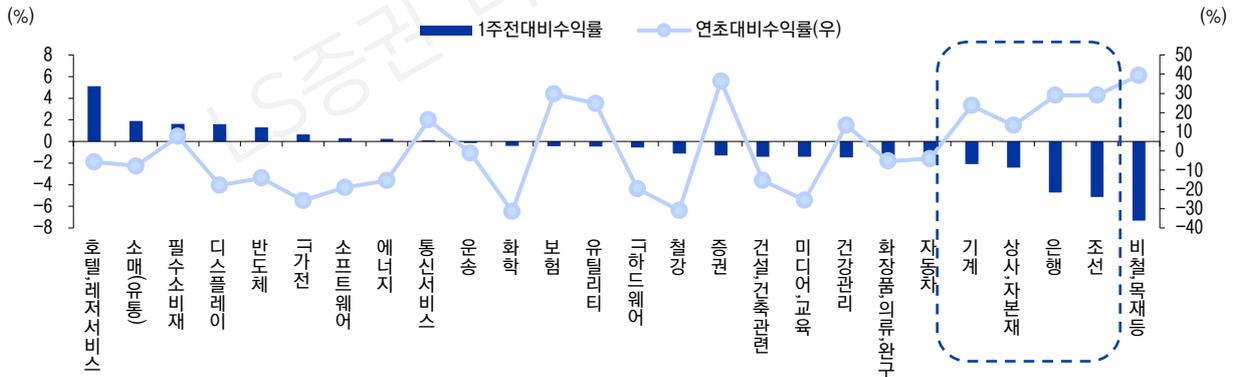
###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 고조,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의 조정

'24년의 메인이벤트로 일찍이 지지율 변화에 따른 관련 트레이드 등장시켰던 미 대선이 몇 일 앞으로 다가옴. 곧바로 이어질 11월 FOMC 결과도 투자자들을 긴장시키는 요인. 대선 결과 확인 시점은 스윙스테이트 시나리오에 따라 길게는 4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음. 특히 개표 방식이 재각각인 스윙스테이트의 경우 에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등은 개표가 빠른편. 다만 외신들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2020년 개표논란이 있던 지역이 최종 격전지가 된다면 결과 발표까지 최소 4일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 이번주까지 출구조사와 뉴스에 따른 대선 트레이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증시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에 비교적 작은 악재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임. 특히 그간 증시를 주도했던 업종 및 종목에서 두드러진 모습. 국내 증시에선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은행, 증권, 건강관리 등의 섹터. 건강관리 업종에서도 YTD 기준 +26%가량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5.9%), +98%의 유한양행(-8.6%) 등의 차익실현 매출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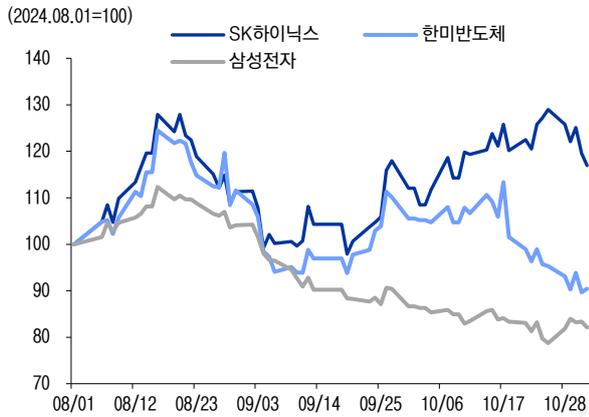
미국 증시에서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들의 실적발표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메타는 컨센 상회한 실적에도 과도한 CAPEX 전망이 불안요인으로 지목.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 가이던스가 +31~32%YoY에 달했음에도 성장률이 소폭 둔화했던 사실에 -6%대 급락. 이러한 빅테크들의 급락은 AI산업 전반의センチ멘트 부진으로 연결

그림3 '24년을 주도했던 섹터들의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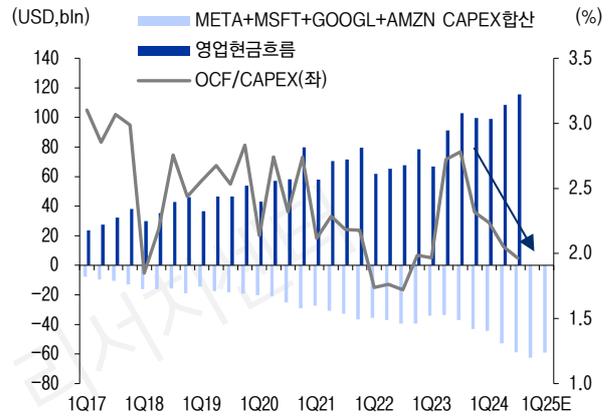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간만의 아웃퍼폼 보여준 삼성전자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빅테크 실적발표에서 지적됐던 CAPEX 확장 우려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더해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의 EY사임과 회계조작 의혹은 엔비디아(-4.4%, 1W)와 관련 반도체 업종(-3.8%)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하방압력 부여. SMCI는 엔비디아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 SMCI의 회계부정 의혹은 '18년 상장폐지, '20년 8월 SEC가 회계위반 혐의로 기소, 1,750만달러의 벌금부과와 함께 시작. 이후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으며 급등했으나 올 4월 예비실적발표 취소, 8월 힌덴버그 셀리포트 발표 등의 악재와 함께 지속된 급락 연출. 그 시기마다 상승세 이어가던 엔비디아 및 AI 반도체 업종 전반에도 족쇄로 작용하는 모습

그림6 엔비디아 주요 고객 순위(매출순)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SMCI 회계조작 의혹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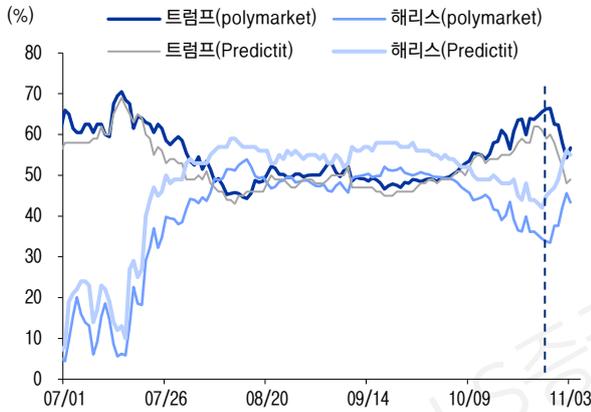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 2차전지, 대선 직전 트럼프 트레이드 후회

그간 대선 트레이드에 내러티브적 영향을 담당했던 Polymarket, Predictit 등 베팅사이트. 해당 사이트들의 해리스 당선확률은 10/29을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50%대에 근접. 관련 트레이드 역시 후행하며 TAN, ICLN 등 재생에너지 관련 ETF 및 골드만의 민주당 바스켓 인덱스도 상승. LG에너지솔루션(+1.4%), 에코프로비엠(+7.7%), 엘엔에프(+14.6%), 포스코퓨처엠(+0.4%) 등 국내 업종도 영향. 다만 이러한 베팅사이트 기반 트레이드 출현에

최근 경고 메시지 대거 등장. 지지율 기반이 아닌 참여자들의 투자에 기반했기에 집단지성이 아닌 비이성적 투자심리가 관여했을 가능성. 대선 직전 불확실성에 따라 당선 확률의 50%로 수렴하게 된 현상 또한 이러한 투자 심리적 영향일 수 있음에 주의 필요

그림8 대선 직전 중립으로 몰린 베팅 사이트 확률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골드만 삭스 대선 주식 바스켓도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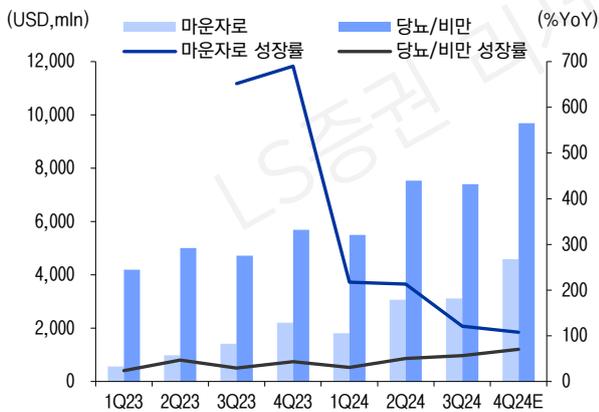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실적발표와 연동됐던 종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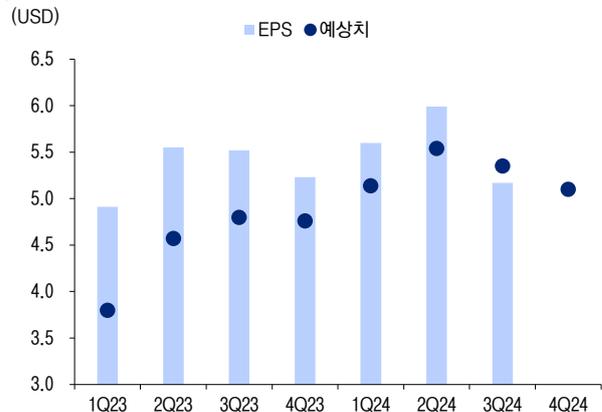
3분기 실적발표에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성장률 둔화(전분기 213%→120%YoY)를 노출한 일라이 릴리는 당일 -6.3% 주가하락 기록. 이에 비만치료제 공동연구 소식으로 급등했던 펩트론(-6.6%) 또한 매물 출회. 이처럼 미국의 섹터 선도 주식들의 실적발표가 이어짐에 따른 국내 밸류체인 및 피어 그룹의 커플링 발생. 두산밥캣(+0.3%), HD현대인프라코어(-6.1%)를 피어그룹으로 둔 캐터필러는 그간 호실적을 이끌던 북미지역의 수요가 대선 및 금리 불확실성과 경기 영향으로 둔화. 글로벌리 한 재고조정도 이뤄지며 부진. 몇일 전 실적을 발표한 HD현대인프라코어 역시 대선, 금리 불확실성, 중동 분쟁 등이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 시차를 두고 실적을 발표한 GM과 포드는 EV 부문의 실적이 갈리며(GM호조) 국내 배터리 공급사 주가 변동성 확대

그림10 일라이 릴리, 폭발적이나 둔화세 보였던 성장률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캐터필러의 어닝 쇼크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